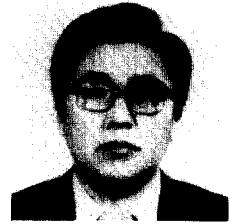


生物工業 發展을 爲한 提言

— 現場 技術 人力の 養成 —

柳韓化學工業株式會社 常務理事·工場長 南 宮 堅



今年도 例外없이 各 大學의 學科別 合格 점수가 新聞마다 보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高得點의 優秀한 學生들이 모인 곳 중에는 生物工學 分野의 學科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傾向은 今年뿐만 아니라 몇년 전부터 계속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生物工學 分野 學科의 在學生이나 卒業生들은 모두 優秀한 頭腦의 人力 資原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政府의 積極적인 政策支援과 弘報, 產學의 希望찬 未來像이 젊은이들을 魅了시켰기 때문이다. 이 有能한 人材들이 大學을 떠나 새로운 進路를 찾을 때에는 대부분이 進學을 위한 大學院, 海外留學 또는 有名한 研究機關, 企業의 研究所를 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장래 韓國의 生物工學의 人材로 活用할 수 있는 좋은 投資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막 生物工學의 씩이 各企業으로 확산되어 새롭게 참여하려고 하는 企業이나 지금까지 꾸준히 生物工學 分野를 키워온 企業에서는 生産現場에서 활약할 수 있는 人材의 確保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새로 충원된 人力들이 대부분 生産現場 근무를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現在 근무하고 있는 人力들도 機會만 주어진다면 研究分野로 옮기려고 하거나 進學 등의 理由로 生産現場을 떠나려고 하는 傾向이 많아지고 있어 生物工業 現場 技術의 발전 및 擴充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生物工業의 發展 정도는 生物工業 相關 物質의 商品化로 推定될 수 있다. 市場 競爭力이 있는 製品을 商品化 하기 위하여는 開發 研究도 중요하지만 既存商品 또는 새로운 개발상품으로 適正한 利潤을 企業에 줄 수 있는 生産技術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課題이다. 아직 國內 商品化가 되지 않은 國內外 技術이 조속한 商品化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企業의 과감한 設備投資가 우선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生産技術(設備 設計, 生産노우하우)을 확립시킬 수 있는 人材의 育成도 시급

한 課題이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產·官·學·研의 相互協同 體制가 조속히 강구 되어야만 한다. 生物工業의 生産技術은 長期間의 現場 經驗 蓄積과 주변관련부분의 광범위한 기술지식을 응용, 종합시킨 기술로써 해당 人力의 부단한 탐구력과 인내력, 또한 응용력을 발휘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人力을 양성하기 위한 產·官·學·研의 共同 대처, 노력으로서는 첫째, 現 人力의 수준向上과 相關업계의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技術交流會와 같은 모임이 양성화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을 과감히 개방하여 선의의 기술경쟁으로 유도되어야 하겠다. 둘째, 國家技術 資格法의 보완이 시급하다. 他 기술분야는 細分된 適正 資格制度가 제정되어 專門技術職으로서의 資格을 부여받고 있으나 유독 生物工業 分野에는 全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가 현장 기술인력의 성취 의욕 저하로 進學, 轉業 등을 생각하고있다. 이 분야에 자부심을 갖고 활약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주어야겠다. 셋째, 현장 기술인력의 지식 再充電方案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현재의 產業 seminar, 學會, 學校教育의 內容이 現場技術과의 現實性, 연계성 결여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적인 학문적 내용, 고차원적인 기술내용보다는 당면한 문제점의 해결이나 응용기술을 담은 내용이어야 현장 기술인력의 호응도가 높아질 것이다. 生物工業을 꽃피우기 위하여서는 이 분야의 좋은 土壤(生産設備)을 만들어 잘 가꿀 수 있는 능력(생산기술)을 갖춘 農夫(生産技術人力)의 부지런한 노력이 있을 때 많은 수확으로 거둘 수 있으며 부강한(생물공학의 발전) 살림이 될수 있을 것이다. 영농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진취적이고 부지런한 營農者의 꾸준한 努力끝에 農年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